

프로야구 후반기 관전포인트는?

| KIA 역대 최다승 도전 · 선수들 대기록 경신

후반기 풍성한 기록 잔치가 프로야구 팬들을 기다린다.

전체일정의 59%인 425경기를 소화하고 휴식기에 들어갔던 2017 타이거즈 KBO 리그가 이제 295경기를 남겨두고 18일부터 본격적인 후반기 열전에 돌입한다.

후반기에도 전반기 못지않은 풍성한 기록들이 예상된다.

팀 기록 부문에서는 KIA가 압도적이다. KIA는 전반기 85경기에서 57승을 거둬 후반기 남은 59경기에서 37승을 추가할 경우 94승으로 작년 두산이 기록한 팀 한 시즌 최다승인 93승을 경신한다.

KIA는 또 전반기 동안 팀 타율이 0.310에 달한다. 역대 한 시즌 팀 최고 타율이었던 2015년 삼성의 0.302를 갈아치울 기세다. 안타, 득점, 타점, 투타 등 팀 타격 전반 기록을 새로 쓸 것으로 기대된다.

KIA는 KBO 리그 최초로 통산 2만 7000타점전에 380타점, 4300도루에 1도루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반기 153홈런으로 팀 홈런 1위에 오른 SK는 한 시즌 팀 최다홈런인 2013년 삼성의 213홈런 돌파에 61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삼성은 KBO 리

그 첫 통산 4만1000안타와 6만3000루타, 2만1000타점에 도전한다.

개인 투수 부문에서는 작년 마지막 1승과 올시즌 14연승을 포함해 선발로만 15연승을 거두고 있는 KIA 헥터 노에시의 행보가 주목된다. 헥터는 프로야구 원년 박철순이 거둔 투수 최다 연승기록인 22연승에 도전한다.

또 2003년 정민태가 세운 개막 이후 선발 최다연승인 14연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후반기 첫 선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할 경우 이 부문 신기록을 작성한다.

현역 최다승 투수인 한화 배영수는 KBO리그 통산 5번째 140승에 6승, 두산 장원준은 통산 15번째 120승에 1승만을 남겨 놓고 있다. 장원준은 탈삼진 25개를 더하면 역대 두 번째 10년 연속 100탈삼진 기록까지 추가한다.

삼성의 에이스 윤성환도 4승을 추가할 경우 통산 120승을 달성한다.

올 시즌 세이브 1, 2위를 달리고 있는 NC 임창민과 한화 정우람은 나란히 100세이브에 도전한다. 정우람은 시즌 16세이브로 임창민에 이어 세이브 부문 2위에 올라있지만 100세이브

에는 임창민보다 더 가까이 다가서 있다. 정우람은 통산 94세이브로 100세이브까지 6세이브만을 남겨두고 있다.

전반기에만 21세이브를 쓸어 담으며 이 부문 1위에 올라있는 임창민도 17세이브를 추가하면 100세이브를 달성한다.

세이브 부문 3위 롯데 손승락(15세이브)은 5세이브를 추가할 경우 구대성에 이어 통산 2번째로 6년연속 20세이브 기록을 세운다.

한편, 홀드 부문에서는 한화 권혁이 안지만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 150홀드 달성에 7홀드만을 남겨두고 있다.

올해로 은퇴를 예고한 삼성 이승엽은 역대 첫 번째 1500타점 달성까지 34타점이 모자란다. 투타도 3983루타를 기록하고 있어 KBO 리그 최초로 4000루타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승엽은 통산 449개의 2루타로 450 2루타에 1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2루타 10개를 추가할 경우 통산 최다인 양준혁의 458 2루타 기록도 넘어선다.

LG정성훈은 통산 2079경기에 출장하고 있어 57경기에 더 나오게 될 경



2018 프로야구가 18일부터 후반기 시즌에 돌입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KIA가 11-5 승리를 거둔 뒤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우 양준혁의 통산 최다 경기출장기록인 2135경기를 경신한다.

전반기를 31홈런으로 마친 SK 최정은 2015년 박병호 이후 2년만에 50홈런 돌파를 내다보고 있다. 최정은 전반기 82경기에서 31홈런을 때려내며 경기당 0.38개의 홈런 페이스다. 이

추세라면 시즌 54홈런이 가능하다. 지난 15일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승 플레이가 나온다면 2003년 삼성 이승엽의 56홈런도 넘어설 수 있다.

올 시즌 103안타로 KBO 리그 최다 안타 부문 공동 10위에 올라있는 돌풍의 신인 넥센 이정후는 데뷔 첫 해 최다 안타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15일 올스타전을 기점으로 승 플레이가 나온다면 2003년 삼성 이승엽의 56홈런도 넘어설 수 있다.

올 시즌 103안타로 KBO 리그 최다 안타 부문 공동 10위에 올라있는 돌풍의 신인 넥센 이정후는 데뷔 첫 해 최다 안타 기록에 도전한다.

/김민근 기자

프로야구 입찰비리 수사 의뢰

문체부, KBO 관계자 사건 축소·은폐 의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최근 제기된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 야구위원회(총재 구본능)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의 자체 조사결과, KBO의 담당자 감모 팀장은 2016년 중국 진출 사업 당시 가족회사인 A사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팀장은 입찰제안서, 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 직원 3명을 평가위원 5명에 포함했다. 또 별개 법인인 B사의 2015년 실적을 A사의 실적으로 기재한 점, A사의 불이행에도 잔금을 전액 지불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KBO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

사를 보류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지난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강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다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모씨,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모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 다.

/뉴스스



고창군수배 에어로빅스체조대회 '종합사회복지관 라인댄스팀' 대상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제1회 고창군수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고창군체육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 15일 고창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우정 군수, 최인규 군 의장, 김남순 생활체육진흥회 회장 등 내빈과 선수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에어로빅스 체조대회에는 지역 내 노인대학, 경로당, 문화원 등에서 에어로빅스 생활체육을 즐기는 어르신들로 구성된 17개 팀이 참여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연출하면서 많은 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에어로빅스 체조는 유산소 운

동으로서 에어로빅, 스포츠댄스, 요가 등 다양한 장르를 통일된 율동과 힘찬 몸동작으로 관중들을 매료시키는 흥겹고 역동적인 종목이다.

경기결과 대상은 수준급 무대를 보여준 '종합사회복지관 라인댄스팀'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보양성팀', 우수상은 '종합사회복지관 요가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박우정 군수는 "에어로빅스체조는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건강한 삶의 활력을 주는 좋은 역할을 해 준다"며 "행정에서도 생활체육으로서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율동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장류배 전국남여배구대회 성료

순창군체육회(회장 황숙주)와 순창군배구협회(회장 서경석)가 주최 주관한 순창장류배 전국남여배구대회가 최근 순창국민체육센터와 실내체육관 등 9개소 10개 코트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107팀의 선수단 1,500여명과 가족 500여명 등 총 2,0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지난해 대회보다 20여팀이 더 참여해 순창읍은 물론 인계, 동계, 구림면까지 경기장을 배치해 읍은 물론 면단위 식당가도 모처럼 활기를 띠게 했다.

특히 대기팀들이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관내 영화관에서 영화도 관람하고 유명식당 등을 찾는 등 어느때보다 골목상권에 활기가 돌았다는 지역 여론이다.

이번 대회결과 시니어부는 경기도 군포시 유에이스팀이, 남자 3부는 전남 장흥군 대덕 천관팀이, 장년부는 광주광역시 광주빛고을팀이, 여자3부 강진산리그는 광주 첨단스카이팀이, 화문산리그는 광주 선풍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시장배 수영대회 23개종목 500여명 실력 발휘

이번 수영대회는 초·중 성인부부터 나눠 자유형 50m 외 23개종목 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선수 학부모, 시민 등 300여명의 열띤 응원이 있었다.

그간 전주시장배 수영대회는 성인부 마스터즈 경기만 개최됐으나, 이번 대회부터는 지역 수영꿈나무 발굴 육성

을 위해 초·중학교 학생부 경기도 함께 개최됐다.

특히 이번대회 성인부 마스터즈 경기에는 완산마스터즈, 마린스동호회 75명 등 도내 수영클럽 동호인들과 서울, 광주에서 참가한 동호인들이 평소 연마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